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4호 HYUNBULNEWS.COM 2026년 9월 16일(음력 8월 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종교특혜’ 세계청년대회 공공 지원 본격화 ‘논란’

정부, 문체부 소속 지원단 출범
‘거당적 지원’ 민주당 추진단도
서울 자치구 MOU · 조례 제정
“과도한 공적 지원, 지속 점검”

김내영 · 이현희 기자

‘정교분리 원칙 위반’, ‘종교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공적 지원과 종교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올해 3월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정부 공식 지원체계와 여당 추진단 구성,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 및 업무협약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행사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8월 14일 국무총리훈령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안전·수송·의료 등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지원 △홍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단장은 문체부 종무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문체부 고위공무원단 중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필요할 경우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활동 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정부가 별도의 훈령으로 지원단을 설치하면서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식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지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세계청년대회 거당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8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공동단장은 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각 지자체에서도 세계청년대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6월 1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2서초지구와, 서대문구는 서울대교구 제2서대문·마포지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도 참여했다.

서울 중구는 8월 13일 서울대교구 제1지구와 같은 취지의 협약을 맺었다. 중구는 전반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제1지구는 명동성당과 서소문성지 등의 현장 운영과 협력 지원을 맡는다.

행사 기간 참가자들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구도 지원에 나섰다. 용산구는 9월 3일 서울대교구 제1지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로구의회(의장 김철수)는 최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2027년 8월 8일까지며 △세계청년대회 홍보 활동 △참가자 안내 및 문화교류 활동 △구로구 관광·문화자원 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같은 날 구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 공간 제공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 시설 개보수 등이 담겼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국제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와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별위원장 보화 스님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정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대해 재정·공공시설 지원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은 맹렬히 규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도 “청년대회가 끝난 이후 관련 시설의 개보수나 유지·관리 등에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실제 예산과 행정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종교 간 형평성과 화합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이 9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성파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찬탄하는 ‘관음찬(觀音讚)’ 게송이 담긴 족자를 선물했다. 사진=하성미 기자

연임 후 첫 예방…성파 대종사 “대중과 함께 뛰라”

진우 스님 8일 종정 스님 예방
성파 스님 친필 족자로 축하
원로회의, 총무원장 인준 가결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9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성파 스님은 친필 족자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이날 예방에는 상임선대위원장 수불 스님, 공동선대위원장 선각 스님, 종회의원 진각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국장 스님들이 동참해 연임을 축하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정변전에서 삼배의 예를 올렸다. 성파 스님은 악수를 나누며 진우 스님에게 ‘관음찬(觀音讚)’의 게송이 담긴 족자를 전달했다. 족자에는 ‘일엽홍련재해동(一葉紅蓮在海東) 벽파심처현신통(碧波深處現神通) 작야보타관자재(昨夜寶陀觀自在) 금조강부도장중(今朝降赴道場中)’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이는 “한 잎 붉은 연꽃이 해동에 있어 푸른 파도 출렁이는 깊은 곳에서 신통력을 보이고, 어젯밤 보타낙가산의 관세음보살이 오늘 아침 이 도량에 강림했다”는 뜻으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처럼 종단을 위해 헌신하라는 축원을 담았다.

이어 성파 스님은 직접 준비한 옻 염색 스카프를 진우 스님과 참석한 스님들의 목에 둘러주며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4년 소임을 보며 날마다 참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 그 부족함을 잘 채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파 스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부족함을 절감했다는 것은 이제 제대로 아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칭찬했다. 이어 “4년 전의 진우 스님과 지금의 진우 스님은 완전히 다른 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책임과 부족함을 다 채우지 못할까 봐 깊은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성파 스님은 식법자구(識法者懼)의 가르침을 전했다. “법을 아는 자가 두려워할 줄 안다”고 강조한 성파 스님은 “진리와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 무서움을 알기에 늘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된다. 지도자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야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종단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성파 스님은 진우 스님과 함께 이번 선거를 위해 헌신한 동참 스님들을 향해 “고삐를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힘차게 뛰시라”며 참모진들의 지속적인 화합과 조력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대종사)는 9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82차 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인준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진우 스님은 선거법상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차기 총무원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이 항상 법체 청안하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종단을 위해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오늘 회의 안건인 제38대 총무원장 인준의 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스님들의 지혜를 모아 회의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적 원로의원 23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 김내영 기자

